

[KT 새노조]

단체협약 개정요구안

① 저녁이 있는 삶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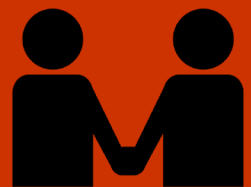


가족과 함께하는 삶,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저녁을 누릴 권리,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고 즐기는 휴일, 아이의 손을 잡고 출근하는 아침. 모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.

- 비연고지 근무 제한 : 2년 이상 조합원의 동의 없이 비연고지 근무 금지
- PC 셧다운제 실시 : 장시간 근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저녁 7시 이후 PC 셧다운
- SNS 업무지시 금지 : 퇴근 후 또는 휴일 시간 보장을 위해 근무시간외 카톡 등 SNS 업무지시/보고 금지
- KBN 방송시간 정상화 : KBN 방송시간 9시로 변경 조기출근 방지

② 함께 만드는 KT

노동조합이 기업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통신의 공공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열린경영, 책임경영에 동참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성을 높입니다.



- 노동이사제 도입 : 노동조합에 사외이사 추천권 보장,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도입 추진 중.
- 경영예고제 도입 : 사업분할, 양도, 분사, 아웃소싱을 할 경우에는 1년전 사전 예고, 경영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 확보

③ 상생으로 가는 길

이석채 전 회장의 공포 경영의 잔재를 청산하고 노동자가 회사 발전의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회사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경영을 추구합니다.



- **새노조 차별 금지** :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에게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고 신입사원에게는 노동조합 선택권을 부여함
- **해고자 복직** :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 의혹 공익제보로 해고된 이 해관 새노조 전위원장의 복직은 상생경영의 출발점임
국민권익위, 법원도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해고가 위법함을 인정함
- **직권면직 제도 폐지** : 2년 연속 인사고과 최하위 등급 직권면직 조항 삭제, 노동자들의 기가 살아야 신바람 나는 일터가 만들어지고 다시 kt가 다시 살아나는 선순환이 이루어짐



④ 정의로운 나눔

주주와 경영진에게만 돌아가는 기업의 성과를 공정하게 분배하여 조직 내 일체감을 형성하고 당사자들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정의로운 조직을 만들어갑니다.

- **CEO 연봉상한제 도입** : 회사내 임금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연간 최대임금은 최소임금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음
2015년 1분기 보수 기준 CEO 연봉 직원 평균의 40 배
(황창규 회장 7 억 9600 만원, 직원 평균 2000 만원)
- **임금피크제 재교섭** : 동종업계 SKT, LGU+ 수준으로 재교섭

	KT	SKT	LGU+
임금 피크제 내용	만 56 세부터 전년연봉기준 10%씩 삭감	만 59 세부터 매년 전년 연봉기준 10% 삭감	기존 정년인 만 58 세까지 임금삭감없는 임금피크제 협의중
특이 사항	3년 임금을 4년에 나눠 지급하는 꼴	기존 정년인 58 세까지 임금삭감 없음	-

- **임금체계 당사자 중심주의** : C 직, S 직, A 직 등 현저히 다른 평가 보상체계를 적용받는 조합원의 경우 해당 직군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당사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임금협약 체결